

여성 역량 강화부터 여성·가족 정책 연구까지 수행... **전북여성가족재단**

#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으로 큰 걸음 내딛다

전북여성가족재단(원장 전정희)이 20일 공식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김관영 도지사를 비롯해 국주영은 전북도의회 의장 이병철 환경복지위원장, 서거석 교육감 시·군의원, 유관기관장, 여성단체장 등 250여 명이 함께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와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의 통합을 알리는 전북여성가족재단 현판식을 시작으로 여성·가족 정책 허브 기능 역할을 공고히 하고자 새로운 비전을 선포하고, 혁신 조직 구축의 목표를 구체화하는 15개 실행과제를 공유했다. 전북도는 그간 정책기능은 전북연구원 산하 여성정책연구소에서, 실행기능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로 나눠 이원화해 있었다. 이로 인해 연구와 실행의 괴리가 좁혀지지 않아 2010년부터 언론과 여성계, 도의회 등에서 양 기관의 통합논의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후 민선 8기 전북도지사직 인수위에서 급물살을 탔다. 2023년 3월 전북여성가족재단의 조례를 개정·공포하고, 4월 출연 동의안이 가결되면서 민선 8기 1년여 만에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새롭게 출범하게 됐다. 더불어, 전신인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가 지난 8월 2023년 전북도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가’ 등급을 달성, 2년 연속 가등급의 쾌거를 이뤘다. 이에 따르면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에서 담당하던 여성역량강화교육 및 여성일자리지원과 여성정책연구소의 여성·가족 정책연구 및 위탁기관인 거점형여성평등센터, 생활영양병가센터를 아우르는 여성가족정책 플랫폼으로 큰 걸음을 내딛는다. 직제는 원장을 필두로 4팀으로 구성된 경영기획본부 그리고 여성정책연구소를 별도



20일 열린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식에서 전정희 원장 등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북여성교육문화센터 · 전북연구원 여성정책연구소 통합**  
**2010년부터 논의 제기... 민선8기 도지사직 인수위서 급물살**  
**지난 3월 조례 개정 · 공포... 민선8기 1년여 만에 새롭게 출범**

로 둔다. 최근 본부장과 박사급 연구원의 채용 절차를 일부 진행했으며, 출범식 이후 재단 운영 상황에 맞춰 인원을 충원할 계획이다. 전정희 원장은 “긴 기다림과 오랜 염원이던 전북여성가족재단이 지나간 시간의 터널

을 지나 출범했다”며 “여성·가족정책과 여성활동을 지원하는 기능을 확대해 전북특별자치도 위상에 맞는 양성평등 사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여성가족재단은 지역 여건에 맞

는 여성·가족 정책을 연구·개발하고, 양성평등 및 여성 역량 강화, 여성들의 활동 네트워크 거점으로서의 다양한 교류협력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아울러 여성일자리와 관련한 경력단절 예방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 지원 사업 등을 맡아 여성과 가족이 행복한 전북을 만드는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 전북여성가족재단 출범 관련 사항은 전북여성가족재단 행정지원팀(063-254-3840) 및 재단 누리집(<http://www.jwvf.or.kr>)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정은성 기자



## ‘5분의 미학 미디어아트 이야기’

27일 국립민속국악원 ‘다담’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 출연

국립민속국악원은 오는 27일 오후 2시 국립민속국악원 예음헌에서 차와 이야기가 있는 국악콘서트 ‘다담’ 공연을 개최한다. 이번 이야기 손님은 디지털 기술과 동서양 고전 회화를 접목한 뉴 미디어아트로 주목받고 있는 이이남 미디어아티스트(사진)가 출연해 ‘5분의 미학, 미디어아트 이야기’를 주제로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준다. 이야기에서는 영감의 원천이 되어준 고향 담양에 대한 유년 시절의 추억을 회상하며, 미디어아트 작가로 활동하게 된 계기, 해외 아트페어 참가 후일담 등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로 준비된다. 이야기와 더불어 김홍도의 ‘복죽도’, 겸재 정선의 인왕제색도-사계 등 동서양의 고전 회화를 디지털 기술과 접목시켜 새롭게 재해석한 다양한 작품을 감상한다. 이이남은 전 세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는 예술가로, 해외 전시 및 다양한 예술 장르와의 협업을 선보이고 있다. ‘우리음악 즐기기는 ‘조이앙상블’이 출연해 해금, 생황, 첼로가 함께 어우러진 창작곡 무대를 선보인다. /남원=김기두 기자

## 전통문화전당, ‘순간포착! 우리놀이 전국 공모전’ 개최

‘전통놀이 즐기는 사진’ 주제... 내달 23일까지 신청접수

한국전통문화전당(원장 김도영)은 우리놀이터 마루담에서 ‘제4회 순간포착! 우리놀이 전국 공모전’을 개최하고 20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일상 생활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전통놀이를 체험하며 놀이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우리놀이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공모 기간은 오는 10월 28일이며, 주제는 ‘우리놀이(전통놀이)를 즐기는 사진’이다. 이날 전당에 따르면 공모전 심사는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통해 △작품의 적합성 △구도나 기술의 완성도 △창의성 등을 고려해 수상작을 선정할 계획이다.

수상작은 한국전통문화전당 원장상을 비롯해 최우수상과 우수상, 장려상 등이 있으며 수상자에게는 우리놀이 세트가 수여된다. 이 외에도 베스트포즈상, 놀이열정상, 합박웃음상 등을 10명씩 선정, 기프티콘을 증정할 예정이다. 공모 결과는 10월 31일 전당 홈페이지([www.ktcc.or.kr](http://www.ktcc.or.kr))를 통해 발표된다. 김도영 원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일상 속 우리놀이가 활기를 더 하고, 우리놀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길 기대한다”며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사진 공모전에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전북 예술·관광상 후보자 공모

전북문화관광재단, 내달 25일까지

전북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오는 10월 25일까지 전라북도 예술·관광상 수상 후보자를 공모한다고 밝혔다. 예술·관광상은 문화예술인의 창작의욕과 관광업 종사자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전라북도 예술·관광산업의 발전에 기여한 자를 포상하고자 재단이 올해 처음으로 도입한 수상제이다. 20일 재단에 따르면 이 상은 3년 이상 전라북도에 거주 중인 예술인, 업계 종사자 및 단체 등에 대해 총 15건을 선정해 수상한다. 다만, 동일한 공적으로 도지사 표창 또는 정부포상 등을 수상했거나, 각종 비위 및 부조리 등 사

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는 제외된다. 특히, 문화예술 및 관광분야의 단체·지자체·기관과 공모일 기준 20세 이상 개인이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전문가 심사와 공적심사 등 두 차례의 심사를 거쳐 12월 중 수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수상자에게는 도지사 표창과 공적 아카이브 전시가 제공된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우수한 예술인과 관광업계 종사자를 발굴하고 수상하는 기회가 만들어져 기쁘다”며 “단순히 공로의 우열을 가리는 시상제도가 아니라, 전라북도 문화관광의 인적 기반을 강화하고 순수예술부터 관광산업까지 아우를 수 있는 화합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정은성 기자

20~24일 진안 향토작가 초대전

진안군 향토작가 초대전이 20일 개막을 시작으로 흥삼축제가 열리는 24일까지 관광정보센터 2층 수물문화미술관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진안미술협회 진안지부 작가 30명이 참여했으며 ‘물’의 소중함을 주제로 진안에서 영감을 얻은 동양화, 서양화, 서예, 서각, 공예작품 등 다양한 미술 분야의 작품을 전시한다. 이진욱 한국미술협회 진안지부장은 “향토작가 초대전시는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군민의 공감대와 여러 작가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으며, 올해의 활동을 기반으로 더 성숙하고 더 깊어지는 문화예술 활동을 펼쳐 보이겠다”고 밝혔다. /진안=우태만 기자

온가족이 함께 하는 즐거운 하모니

# 제7회 전라북도 아리울 아버지 합창제

2023년 9월 23일(토) 오후 3시~

## 전북도청 대강당

주최: (사)전북문화진흥원, 전주매일신문

후원: 전라북도, 전주시

\*\*본 행사는 전라북도, 전주시 보조금 사업으로 진행합니다.

### 출연 합창단

미음모여 합창단, 김제시합창단, 온고물여니합창단,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전주소년소녀합창단, 전주여성합창단